

벤엘로 올라가라 (창세기 35:1-15)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는다.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복음의 중요한 눈이 열릴 줄 믿는다. 그래서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언약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원죄는 사단에게 종이 되었다는 표현이다. 인간의 최초의 죄이고 그 때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언약이 깨졌다.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언약이 살아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사단으로부터 사람을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그런데 이제는 깨졌기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히 종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저주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다. 운명이 되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온 것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기 바란다. 아주 중요한 응답의 근본이다. 이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불신자들 중에서는 이런 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젊을 때는 기고만장한다. 나이가 들면 그 소리가 수그러들고 결국은 속으로 들어가고 만다.

니체는 젊을 때 아주 능력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정신병이 시작되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뭔가 소리를 지르며 죽었다고 한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크다. 한 시대의 세계의 사상을 이끌어 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단에게 끌려 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제아무리 잘나도 뛰어난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복음에 감사하고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복음은 그리스도이다. 그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세 가지 직분을 완성했다고 하였다. 그는 사단의 머리를 깬 왕이다. 원죄로 인해 주어진 모든 저주와 재앙을 제거하셨다. 제사장의 일이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이다. 선지자이다. 내가 곧 길이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 무슨 방법을 써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리스도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왕이라고 설명하셨다. 나는 너희의 제사장이고, 너희의 선지자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단어들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 말고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다른 모든 것은 이 의미를 잘 깨달도록 하기 위하여 준 것이다. 잘 생각해 보고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 질문도 해보고 이 언약으로 도전도 해보고 해서 마음에 심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언약으로 답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답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답을 가진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면 모든 영적문제에서 해결되는가 질문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사단의 머리를 깬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누리면 내 인생의 저주 재앙, 모든 문제가 제거되는가 질문해 봐야 한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까 하고 질문해 봐야 한다. 한번으로 답 안 나온 답 날 때까지 계속 질문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 주신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24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일을 완성하신 선지자라고 하셨다.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냥 듣는 것으로는 답이 안된다. 생각해 보고 질문해 보고 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것이, 이 언약이, 이 복음이 인생 모든 것의 답이라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1. 단을 쌓아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에게 두가지 명령을 하셨다. 첫째는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내게 단을 쌓으라고 하셨다. 단만 쌓는 것이 아니라 벤엘에서 살라고 하셨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 앞장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온다. 그런데 이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히 분노했다. 화가 많이 났다. 그래서 수를 썼다. 방법을 썼다. 우리는 할례를 받는 민족인데 너희도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했다. 본인이 추장이니 모든 주민들에게 우리도 할례를 받고 하였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면 그 상처가 나올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 버렸다. 난리가 난 것이다. 추장집에도 가서 추장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디나를 찾아왔다. 야곱은 겁이 많은 사람인데 아들들은 안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창세기 34장 25-31절에 보면 몰래 기습해서 남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물건들도 다 빼앗았다. 그 집들을 노략하고 양과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았다. 그리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의 물건들을 싣다 가져왔다. 난리난것이고 큰 사건이 생긴 것이다. 이것을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었다. 그리고 니가 예서를 피해 도망갈 때 나를 만난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셨다. 이제 야곱에게 정말 언약고백하는 시간표가 온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 그 가족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의 우상을 제거했다. 2절에 보면 자기 집안 사람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벤엘로 올라간 것이다. 당시에는 귀고리같은데 이방신상들을 새겨놓은 것이 많았다. 그것을 다 버리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 입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진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표가 왔다.

지나간 기록을 보면 창세기 31:54, 33:20절에 보면 야곱이 제단을 쌓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우상을 제거하고 옷도 다 갈아 입었다. 야곱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단을 쌓는 것이 무엇인지 안 것이다.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고백한 것이다. 우상 제거하고 의복도 갈아입을 정도로 야곱과 가족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 고백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아마 이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던 것 같다. 그래서 야곱의 스토리를 이 35장에서 끝냈다. 야곱은 그 이후에도 살아 있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되었을때도 애굽에 같이 내려갔다. 사람이 살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끝낸 것은 이것이 끝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다. 야곱이 이 언약으로 정말 돌아왔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 할 말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전에처럼 한번씩 단 쌓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정말로 언약을 잡고 내게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도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다. 너도 야곱처럼 돌아와서 내 앞에 단을 쌓아라. 그러면 나도 더 이상 너에게 할 이야기가 없을 것이다. 너의 인생에 대해 할말 없을 것이다. 니가 이 언약안에 야곱처럼 완전히 돌아왔으니.. 너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메시지이다. 우상도 제거하고 의복도 갈아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와서 정말 언약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다는 것이다. 다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야곱은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이다. 야곱에게서 더 이상 다른 것 볼 필요 없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래야 한다. 정말로 그리스도 알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언약을 정말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고 언약을 잡고 언약안에서 하는 기도와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보실 것 없고, 내 인생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으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살아 있음에도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낸 것이다. 더 이상 야곱과 씨름할 필요 없다. 전에는 밤새 해도 결론 안 났고 결국 축복하고 끝냈다. 그날 끝났지만 끝 안 난 것이다. 왜냐하면 야곱이 언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야곱 마음에 하나님 언약이 언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새도록 씨름해도 결론이 안 났으니까. 결론은 언약에서 나와야 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의 마음의 결심이 하나님 마음에 통했다. 났어.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너의 후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났어. 굉장한 메시지이다. 더 이상 내가 너의 인생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 가만히 너는 벤엘에 살고 나에게 단만 쌓으면 모든 것 끝날거야. 언약을 고

백하고 그것을 누리고 진심으로 마음에 담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니가 언약을 회복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니가 정말 한 마음으로 올인하면 너는 완전 기적에 기적이야. 이것이 모든 성경의 모든 켈렌트들의 인생의 결론이다. 성경에 일어난 모든 기적은 항상 이때 나타났다. 잘 확인하고 우리도 진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고백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야 한다. 기도보다 이 언약이 되어야 한다. 내 기도가 이 언약보다 중요한가? 그 기도에 내 마음이 언약보다 더 많이 있으면 그것은 종교이다.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언약을 고백하고 잡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예배를 드리러 올때도 마찬가지이다. 언약을 딱 잡고 와야 한다. 예배당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을 기도하는가? 그러면 종교인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므로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음부의 권세는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제도 내가 많이 넘어졌지만 하나님 나는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고백해야 한다. 삼직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으로 고백해야 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 주신 답은 그리스도이다.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안 살면 어찌 되는가? 하나님이 자꾸 우리 인생에 대해 말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밤새 씨름해야 한다.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답 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그리고 이 눈에 더 깊어지는 은혜 있기 바란다.

2. 거기에 거주하라

1절 말씀에 거기에 거주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게 단을 쌓으라고 하셨다. 아마 이 이후 야곱의 삶은 평안했을 것이다. 그 전에는 아마 갈등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일이 생기니 씨름을 하는 것이다. 이제는 베델을 살면서 단을 쌓으면 다 되는 것이다. 그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는 것이다. 야곱이 증인될수 있을 만큼 다 주셨다. 그래서 베델은 야곱에게 개인 약속의 땅이다. 전체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다.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명해주신 개인 영적인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신다. 베델은 야곱에게 잊지 못할 땅이다. 형에게 죽을가 싶어 도망치던 첫날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온다. 거기서 사닥다리를 보았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창 28: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하셨다.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평평 울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너를 데려올 것이다. 이것이 베델에 대한 야곱의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도 개인 영적 약속의 땅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복음시대이고 영적시대이다. 우리에게도 개인 영적 언약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내 개인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전체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특별한 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내 개인 언약의 땅이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안에서 전도의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이 땅을 주신다. 처음에는 그것이 멀리 있는 것같이 보일수 있다. 어떨 때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땅은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러니 그것 잡고 기도 안 할수 없다. 그것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이기에 자동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차츰차츰 가까이 오게 되어 있다. 전에는 멀리 있어서 되겠는가 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전체가 하는 것이지 나하고 관련이 있겠나 싶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이 자꾸 가까이 온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으로 주신다.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우리는 언약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거기서 나의 개인 언약의 땅이 나오는 것이다. 나도 언약을 가졌으므로 나도 언약의 사람이다. 예수를 믿

기에 전체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 말고 그 안에서 나도 개인의 언약의 땅이 있기에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가장 깊은 기도가 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나도 이제 기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리고 도전할 내용도 나온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반드시 무너져야할 구체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다. 이걸 보고 답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이 답으로 살게 되어 있다. 이 답 하나로 인생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넘어가고 역전시킬 수 있는 권세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유는 하나뿐이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복음, 정확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세월을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된다. 복음이 없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가? 개인의 언약의 땅,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닌가? 복음도 없는데, 복음의 일도 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시겠는가? 그런데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의 일을 언약으로 잡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주신다. 이 권세를 누려야 한다.

어떻게 누리나? 개인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 고백은 믿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맘대로 못한다. 누림도 내 맘대로 못한다. 그러나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지속하면 믿어지고 두려진다. 지속하면 권세가 나타난다. 내게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는 기도를 가진 자가 되고 누리게 된다. 이것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무기가 된다. 이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한다.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진심으로 언약을 고백하는 시간표가 있기 바란다. 전에도 제사 지낸적 있지만 이번엔 달랐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많이 말하고 언약기도 많이 썼다. 이제는 다르다. 그 주간에 되기를 바란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언약을 고백하는 마음이 있었습시다. 야곱에게. 그래서 우상 다 버렸다. 전에는 우상 버리고 그렇게 머리에 안 들어 왔다. 그냥 간단히 예배 드리는 것이다. 진심의 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한 것이다. 다르게 아니다. 이 언약,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대하여 하나님과 진심이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다. 이제 됐다.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바라는 것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일행을 아무도 추적하는 자가 없다고 했다. 왜냐면 하나님이 사면 고을로 하여금 크게 두렵게 했다. 중요한 메시지이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셨다. 자기들것만 아니다. 빼앗은 것도 많이 있었다. 노략질한 것도 가져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못 따라오게 하였다. 무슨 이야기인가? 언약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셨다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느날 우리에게도 개인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을 잡고 살면 된다. 그리고 계속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고백이 진짜가 되는 것이다. 진짜가 될 만큼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는다. 계속 해야 한다. 다른거 할 필요 없다. 답이 이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 하는 것은 속은 것이다. 지금 내게 답이 나타나든지 말든지 상관 없다. 답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 걸어야 한다. 무조건 여기서 결판을 내야 한다. 어느날 발견하면 그래 이제 너 됐다 하면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정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다른 것 필요 없다.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어느 날 반드시 승리하고 정복하는 인생이 된다. 문제를 정복해야 승리하지 않겠나. 인생을 정복해야지 놀리면 되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증인이 되고 답을 주겠나? 지속하면 반드시 세계 복음화 237 작품이 우리에게 나올 줄 믿는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라. 그리고 오늘 아직도 살아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듯 나중에 아들을 6명이나 더 낳았지만 26장에서 끝났다. 언약이 회복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 소관이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다. 답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이 언약을 확인하는 축복의 주간 되기 바란다.